

# 신문에서 로마자가 쓰이는 몇 가지 모습

최인호

한겨레신문 교열 부장

## 1. 들머리

서기로 이십일 세기를 맞았다. 정부 수립 뒤 중학교 기준으로 국어와 영어를 함께 가르친 뒤로 쉰 해를 넘기면서 제1 외국어 영어(좁게 말하면, 영어 알파벳 또는 로마자)가 우리말글에 끼친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거죽만 살펴도 독버섯처럼 번성하고 있다. 말투와 글투에서 다양성을 만들어낸 점이 그나마 나은 쪽이라면, 이로써 우리말 본래의 틀과 맛을 헝클어 뜨리고, 한자말이 그랬던 것처럼 토박이말을 밀어내며 안방을 차지하는 현상은 독버섯 생태 그대로다. 사대의식 또한 좀 축축하고 기름진 족속인가?

여기엔 정부(정권) 정책의 부박함에도 이에 잘못 거들거나 아예 외면하는 지식인 집단 탓이 크다. 이를 받아 일반 신문·방송이 사회 현상을 반영한다는 명분에도 계도성을 덧칠하여 조장한다. 사상이나 이념도 그렇지만 말글을 장삿속으로 이용하는 경우에서 요즘처럼 노골적일 때는 없을 성싶다. 이는 특히 개인이나 집단 두루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혼란스러운 시대여서 더하다.

장사나 문화 분야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정치나 군사 쪽에서도 사사건

건 외세에 시달리는 판세에다 일자리마저 불안한 지경에서 언론인들 무슨 짓대를 세워 보도하고 챙겨 오롯한 말글살이의 본을 보이겠는가? 그러니 더욱 장삿속으로 흐른다. 허영과 유행 따위를 부추겨 권력과 대중(독자)의 마음을 사고 팔며, 그로써 장사하는 배짱은 늘 그랬듯이 자신들만을 살리는 연장이다.

아무튼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말들이 대부분인 우리의 로마자 적기 실태를 두고 의문은 거듭된다. 현실을 인정해야 하느냐, 한다면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 이는 한자를 얼마나 쓸 것인가 하던 논쟁과 이어지는 바도 있다.

우선 현실은 어떤지 짚어 보자.

## 2. 로마자와 숫자를 섞어 쓸 때와 읽기

우리말글에서 으레 로마자로 쓰는 말로는 단위 이름과 물질 기호(원소 또는 화학 기호)가 있다. 단위 문자는 m, kg, m<sup>2</sup>, km, kV, dB ... 들로서, 그림표나 수식을 빼고는 대체로 미터, 킬로그램, 제곱미터, 킬로미터, 킬로볼트, 데시벨로 읽어 적을 수 있다. 물질 기호는 일상에서 별로 쓰지 않으나 영양소 비타민 A, B, C, 에이치투오(물), 시오투(이산화탄소) 따위는 자주 쓰는 편이다. 로마자와 숫자가 섞인 말에서 숫자를 영어식으로 읽는 버릇이 이런 물질 기호 읽기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요즘 쓰이는 디지털 용어들이나 전자 거래, 프로그램말 등에서 로마자 약자와 숫자가 섞여서 된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 읽기가 마뜩찮다.

비투비(B2B/비즈니스 투(to) 비즈니스) 기업간 거래(기업-기업)

비투시(B2C/비즈니스 투(to) 커스터머) 기업-손님 거래(기업-손님)

비투지(B2G/비즈니스 투(to) 가번먼트) 기업-정부 거래

시투시(C2C/시티 투(to) 시티) 도시 연결

피투피(P to P, 피어투피어) 일대일 연결, 서로 듣기

피투피(P2P, 퍼슨 투(to) 퍼슨) 일대일 연결, 사람 연결

주로 전자 상거래, 인터넷 연결 방식에서 쓰이는 말들로서 to와 2(two)를 넘나들면서 읽고 쓴다. 이 때 2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초중학생들은 대체로 ‘이’로 읽는다. ‘비이비’나 ‘비둘비’ 중에서 ‘비이비’쪽이 많다. 간단히 ‘비-비’로 적을 수도 있다. 물론, 기업간 거래(B2B) 따위로 우리말로 번역하거나 만들어 적는 것이 기본이다. 기업-개인 거래(B2C), 기업-정부 거래(B2G) 들도 마찬가지다. 아니면 괄호 안의 말도 B-B, B-C, B-G로 바꿔 쓸 일이지만 이는 굳어지기 이전의 문제다. 어쨌든 ‘B2B’를 ‘비투비’로 읽는 것은 비껴갈 일이다. 숫자를 읽거나 말하는 방식이 영어나 이런 로마자와 숫자가 어울려 된 말들의 영향으로 영어식으로 읽는 것이 버릇이 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다음 말들은 그런대로 우리식으로 읽힌다.

4C(콘텐츠·커뮤니케이션·코머스·커뮤니티)/7C(커넥티브·커뮤니티·커팩시티·콘텐츠·크리에이티브티·컬래버레이션·캐시)/3D(데인저러스·더티·디퍼컬트, 또는 삼차원)/3C(커맨드·컨트롤·커뮤니케이션)/4H(사에이치)/사에틸납/사에프시대/에이육판(A6판, 46판)/BK21(두뇌한국21, 브레인 코리아 이십일)/타이타닉2(타이타닉 이)/3S(삼에스)/D-1(디 마이너스 일)/39쇼핑(삼구쇼핑)

숫자가 로마자 앞에 놓인 이런 말은 사에이치, 삼시처럼 대체로 사시, 칠시, 삼디, 삼시 따위처럼 우리식 한자 숫자 음으로 읽힌다.

이와 비슷한 말로 미그29, SU27, M16, F5, F15, M16 따위는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 차례로 된 말인데, 주로 미그 이십구, 수호이 이십칠, 엠 십육, 에프 오, 에프 십오, 엠 십육 따위로 읽히나 간혹 영어식으로 읽는 이도 있다. 한 자릿수일 때 영어식으로 읽는 때가 잦고 두 자릿수로 넘어가면 그런 경향이 없어진다.

‘MP3’ 역시 엠피삼이나 엠팩삼으로 읽어도 상관 없으나 엠피스리로 읽는

경향이 있는데, 경계할 대상이다. ‘빅3’ 역시 ‘빅스리’로 읽는 이가 많은데, 영어에 별 물이 들지 않은 아이들처럼 ‘빅삼’으로 읽으면 그만이다.

참고로 한겨레신문사는 ‘기본 표기’에서 고민 끝에 이렇게 정하여 쓰고 있다.

(알파벳과 어울린 아라비아 숫자는 우리식으로 읽는다. 곧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으로 읽어 뒤에 걸맞은 토씨를 붙인다. 삼과 스리, 육과 식스, 구와 나인이 받침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혼란스러운데, 우리 식으로 읽어 쓰면 문제가 안 된다.)

3D/삼디, 타이타닉2/타이타닉 이, MP3/엠펜삼, 16MD램/십육메가디램, IMT-2000/아이엠티-이천, BK-21/두뇌한국 21, 쏘나타3/쏘나타 삼.

‘엠펜3은, 엠펜3이’로 쓰고 ‘엠펜3는, 엠펜3가’로는 쓰지 않는다.(완전원고 수첩, 18쪽)

**2-1.** 현재 영어 숫자말이 들어가 어느 정도 굳어져 쓰이는 말들이 좀 있다. 이들은 그 말 적기에서 손대기 어려우나 사실 번역해 쓰거나, 의지가 있으면 대체로 쓰지 않아도 될 말들이다. 순화한 말도 꽤 있다.

원룸(통집, 단칸집)/원맨쇼(독무대, 독판)/윈스트라이크 투볼/윈스리(하나셋)/윈투윈 마케팅(일대일 거래)/윈스톱 서비스(단번에 끝내기)/윈온(한번에 올리기)/윈아웃/윈피스/윈사이드게임/윈스텝/윈터치/윈투/넘버원(최고) / 투비트/투바이포/투피스/투스텝/투톤/투톱/시오투/에이치투오 / 스리시(3C, 표준국어대사전)/스리섬/스리번트/스리아르스(3R's)/스리아아웃/스리쿠션/스리쿼터/스리쿼터백/스리피스/스리피트라인(야구) / 포(조정)/포볼(사구, 볼넷)/에이포용지(A4·16절지) / 파이버에잇스(럭비) / 세븐시스템(럭비)/세븐에잇스(럭비) / 에이트(조정)/에이트비트(음악)/에이트시스템(럭비) / 나인(야구)/나인핀스(볼링)/나인틴스홀(19번홀) / 텐나인(99.9999999, 물질순도)

위 말들은 몇 개를 빼고는 주로 운동경기에 쓰이는 말들이다. 아직 다듬

어지지 않고 그대로 쓰이는 말도 있는데, 순화 대상들이다.

**2-2.** 아라비아 숫자를 대신하여 등급이나 짝(조), 구역, 묶음 따위를 나타낼 때 로마자를 자주 쓰는 경향이 있다. 간혹 뒤에 숫자를 붙여쓰기도 한다.

A조, B조, A학점, F학점, B지구, C구역, A급, A동, B동, C-31호, BBB+급(신용등급)/ A-24, B-1, C-3(동아일보 쪽수 표시)

이런 말들도 웬만한 의식만 있다면 쓸 일이 없을 터이다. 굳이 국제경기 따위에서 쓸 때는 할 수 없겠지만 말이다.

**2-3.** 주로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려 셈할 때 쓰는 +(더하기), -(빼기)가 아닌 음과 양을 나타낼 때 - +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읽힌다. 나누기나 곱하기 쪽은 아직 잘 보이지 않는다.

### 3. 기사에서 로마자가 쓰이는 모습

신문 기사에서 로마자가 쓰이는 방식은 △번역하고 괄호 안에 약자나 원말을 보인 뒤 번역한 말이나 그 준말, 대이름씨 따위로 받아 엮어나가는 방법 △이름 따위를 소리로 적고 괄호하여 로마자를 넣는 방법 △로마자 약자를 드러내고 괄호하여 번역된 말을 넣거나 원문을 넣고 약자를 드러내어 엮어나가는 방법 △아무 설명 없이 로마자 약자를 드러내고 거듭 쓰는 경우 △국내 단체나 회사, 사람인데도 로마자를 쓰는 경우 △등급이나 짝(조) 따위를 알파벳으로 쓰는 경우 등이다.

#### 3-1. 제목에서

제목에서는 대체로 알파벳을 그대로 드러내는 때가 많다. 글자가 주는 시각성에다 차지하는 넓이의 한계 탓도 있다. 이는 한자를 드러내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되는데, 될수록 삼가야 말 만들거나 제목 만들기에서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젠 CD로 결제·인증까지 / 'MD 손익계산' 세계가 골머리 / BIS지수 4개월 연속 상승 / KDI '2020년 소득 장밋빛 보고' / DJ실정비판 3대신문 / 과일 형태 판매 'e북' / IT업체 손익경중 / SUV차

### 3-2. 본문에서

#### ㄱ. 아무 설명 없이 알파벳을 그대로 드러낸 경우

△AMCHAM은 한국 시장에 투자 진출을 희망하는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조찬을 겸한 '브렉퍼스트 브리핑'(Breakfast Briefing)을 하고 있다.(4. 27. 자)

△신발 전문 B2B사이트인 슈즈인(<http://www.shoesin.com>)에서 신발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신모 씨.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건 값을 어음으로 처리했지만, 요즘은 신용카드 모양의 CD를 활용한다. / 음악을 듣는 데만 쓰였던 CD가 결제·인증수단으로 변신하고 있다. / 국민카드와 씨디캐시는 CD를 이용한 '국민CD구매전용카드(사진)'를 내놓았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B2B 장터에서 물건을 살 때 CD롬에 CD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 사용하기 편하고, 신용카드 번호 해킹 걱정도 없다고 한다.(4. 30. 자)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제로 'e-비즈니스 확산 국가 전략회의'를 열어 향후 3년 내에 기존 산업의 e-비즈니스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5대 발전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4. 28. 자) ('전자 상거래'라 하던 것을 정부에서 사려없이 쓴다.)

△ISS의 컴퓨터 오작동이 복구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NASA는 26일 엔데버의 귀환이 이틀 미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4. 28. 자) (ISS는 국제우주정거장, NASA는 미국항공우주국이다.)

△'반부패시민연대' 명단엔 한나라당 중진인 L·K·S 의원 등 13명, 자민련의 K·C 의원, 국민회의 S의원을 비롯한 4~5명 등 전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54명의 이름이 들어 있었으나, 지난 2월까지의 수사 결과 의원 1명만 사법 처리됐다.(4. 27. 자) (우리나라 사람 성씨를 이처럼 로마자로 쓰는 버릇은 소설 따위에서도 이따금 나오는데 그만둘 일이다.)

위 보기들은 모두 로마자를 앞세우고 아예 번역말조차 없는 경우와, 번역말이나 영어 원문을 괄호에 넣어 준 뒤 로마자를 그대로 쓰는 보기들이다. 이런 방식은 삼갈 일인데도, 자랑삼아 쓰는 듯하다.

#### ㄴ. 원래 한국말이나 번역한 말에 로마자를 넣고 그 뒤부터는 로마자를 드러낸 경우

△미국의 찰스 카트먼 전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됐다고 KEDO측이 26일 밝혔다.(4. 28. 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7일 오후 2/4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5.2%로 전망하는 등 물가불안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 KDI에 따르면~.(4. 28. 호)

△국제통화기금(IMF)은 26일 일본 경제 부양을 위해 달러당 120엔대 중반인 현재의 엔화 약세는 적절하지만 140엔 중반 수준을 넘어설 때는 외환시장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마이클 무사 IMF 경제조사국장은~.(4. 28. 호)

위 보기들은 처음 한 번 본 이름을 적고 괄호해서 로마자를 넣은 뒤 밖으로 그 로마자를 드러내어 쓴 것이다. 대체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는 괄호 안에 한 번 약자를 넣어 주고 다음에 번역된 말이나 이 기구 저 단체 따위로 받아 쓰면 된다.

#### ㄷ. 원문과 번역된 말을 섞어 쓰는 경우

△LG전자가 인도와 베트남에서 CDMA WLL(코드분할다중접속 무선가

입자망) 시스템을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 / LG전자는 인도의 국영통신사업자(BSNL)가 주관한 농어촌 CDMA WLL 입찰에서 루슨트·모토로라 등 세계적인 통신업체들을 제치고 선정됐으며, 수주물량은 20만 회선 규모로 1억 6천만 달러다. LG전자는 또 베트남의 국영통신사업자(VNPT)가 최근 실시한 CDMA WLL 국제 입찰에서 공급자로 선정돼 1500만 달러 물량을 수주했다.(4. 28. 자)

△현대건설 채권단은 26일 CEO(최고경영자) 선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심현영(62) 현대엔지니어링프라스틱 대표이사를 최종 후보로 선임했다. /.../ 회사측은 이사회와 다음달 18일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CEO를 최종 확정짓게 된다.(4. 27. 자)

△삼성전자가 개발한 세계 최대 크기(63인치)의 벽걸이TV용 PDP(Plasma Display Panel)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난당해 현지 경찰이 수배에 나섰다.(4. 27. 자)

이는 모두 로마자를 앞세우고 아예 번역말조차 없는 경우와 번역말을 괄호 안에 넣거나 영어 원문을 넣어 준 뒤 로마자를 그대로 쓰는 보기들이다. 이제까지 보인 기사들의 원칙은 될수록 로마자를 드러내는 쪽인 셈인데, 이를 확대하면 영어 전용에 가깝게 된다.

### ㄷ. 이름 따위를 소리내어 적고 원문을 괄호해서 넣은 경우

△부패 혐의로 체포된 조지프 에스트라다(Joseph Estrada) 전 필리핀 대통령을 지지하는 군중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4. 28. 자) /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 내각이 26일 출범,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57) 전 과학기술청 장관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외상에 임명됐다.(4. 27. 자) /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 등 일본 정부 인사들은(5. 5. 자) /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경제수석비서관과 재경부장관을 지낸 강봉균(康奉均)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6일~. / (4. 27. 자, 다)

위 보기들을 보면, 친절이 대단한 것을 알 수 있다. 동서양 사람을 막론하고 이름 원문을 넣는 친절은 마치 인명사전을 보는 느낌을 준다. 더구나 소리글자인 서양쪽 사람 이름에 로마자를 넣어 주는 것은 최근의 일로서 한결을 더 나아간 친절이다.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나 일본, 중국 사람 이름을 소리대로 적고 한자 이름을 넣어 주는 것 역시 한자쓰기를 조장하는 버릇이다. 일본 사람은 이미 소리대로 적어 준 지 오래고 중국 사람 역시 소리대로 적는데, 꼭 필요할 경우 우리식 한자 독음을 넣는 것으로 족하다. 곧 장쩌민(강택민)이면 된다는 말이다.

#### ㉑. 인터넷 주소를 넣어 주는 경우

△제일제당 계열의 택배회사인 시제이지엘에스(대표 박대용, www.cjgls.co.kr)는 해외 인터넷 쇼핑업체인 폰데이코리아(대표 권영범)와 함께 해외 인터넷쇼핑·운송 대행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이 아무개 기자 hermes@hani.co.kr(4. 26. ㅎ)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주소를 넣는 방식과 읽는 방식이 혼란스러웠으나 우리말로 읽은 뒤 괄호 안에 보이는 것으로 굳어졌다. 우리말 방식도 많이 생겼다.

### 4. 신문 문패 달기에서 보이는 별난 모습들

머니&머니/문화&사람/메트로&로컬/증권&기업(두루 보임)/ \* Money/Sports/Metro/Health/iT Chosun.com/petanews닷컴/e컬처/echosun닷컴/weekend/Biz in Korea/NK리포트(조선)/ \* JMoney/Better Life/ON TV/Metro/Go관/joins.com/e-트렌드/e-CEO/IN Art(중앙)/ \* Money & Life/Sports/Metro/Edu-Metro/Viva! Worldcup/Golf & Golfer/Arts/CEO/i-Sports/donga.com/e월드/e비즈&벤처(동아)

신문의 문패(쪽마다 그 머리에 붙이는 이름)에서 그나마 일간스포츠나 스포츠서울은 로마자나 영어를 거의 쓰지 않았으나 아예 신문 이름을 <SPORTS

TODAY)로 박아 나가는 신문도 있다.

종합 일간지로서 특히 동아·조선·중앙일보가 죽자사자 영문 문패를 달고 있다. 이는 사이신문(간지)에서 더하다.

## 5. 국내외 회사·단체 이름 적기

국의 단체 회사 이름은 처음 한번 원래 약자를 괄호해서 넣어 주고 다음부터는 그대로 읽어 적으면 충분하다. 익은 말은 알파벳을 그대로 읽어 우리말로 쓴다. 기사에서 로마자가 꼭 필요한 경우란 사실 없는데, 제목에서 로마자로 뽑을 때 구색을 맞추려고 넣는 정도다.

한편, 외국 단체나 회사 이름을 적을 때 주의할 것은 그 나라의 알파벳 이름대로 읽고 적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개 영어권 나라거나 국제기구일 때는 영어식으로 읽어 적지만, 그런 것이 잘 분별되지 않은 까닭은 나라를 가리지 않고 로마자로 적고 이를 영어 알파벳으로 읽기 때문이다. 번역해 쓸 수 있으면 번역한 이름을 적는 것이 제일 낫다.

로마자르 된 국내 회사·단체 이름은 물론 그대로 읽어 한글로 적는다. 제 이름이 있으면 그것을 쓴다.

(보기)

IBM/아이비엠·한국아이비엠, MS/마이크로소프트·엠에스, AOL/아메리카온라인·에이오엘,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S&P/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에스앤피, HSBC/홍콩상하이은행·에이치에스비시, BMW/베엠베·독일, ICE/이체에·독일, TGV/테제베·프랑스, AC밀란/아치밀란·이탈리아, CTK/체테카·체코, AFP/아에프페·프랑스

LG/엘지, SK/에스케이, SKC/에스케이시, KTF/케이티에프·케이티프리텔, OB/오비, B&F투자자문/비엔에프투자자문, 한국P&G/한국피앤지, KAIST/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KBS/한국방송공사·한국방송, MBC/문화방송

△재벌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기업 분할을 한 엘지화학이 엘지씨아이(LG

-CI), 엘지화학, 엘지생활건강 등 3개사로 나뉘어 25일 증권거래소에 재상장된다. 옛 엘지화학은 상호를 엘지씨아이로 바꿔 지주회사격인 존속법인으로, 엘지화학과 엘지생활건강은 신설법인으로 각각 첫 거래가 이뤄진다. 세종목의 평가 가격은 △엘지씨아이 3만3000원 △엘지화학 8,800원 △엘지생활건강 5,950원이며, 첫 거래 가격(시초가)은 평가 가격의 90~200% 범위 안에서 동시호가로 결정된다.(4. 25. 한겨레)

이는 로마자로 된 회사 이름을 그대로 읽어 적은 기사다. 만약 로마자로 LG를 넣었다면 200자 한 장 정도에 열 번 이상이 나와 보기가 아주 사납게 된다. 이런 이름을 지어 쓰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도리가 아니다. 에스케이, 케이티에프, 삼성에스디아이 따위도 마찬가지다. 한편 C를 ‘씨’로 쓰고 읽는 버릇이 이런 기업 이름에서 흔히 눈에 띈다. 썩 혼란스럽다.

△김 장관은 이날 박권상 KBS 사장, 김중배 MBC 사장, 윤세영 SBS 회장을 초청, 한국언론재단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 방송사들의 협조를 요청했다.(4. 28. ㄱ—국내 방송사 이름을 모조리 로마자로 썼다. 신문 기사는 물론이고 말할 때도 이렇게 쓰는데, 한국방송공사[한국방송], 문화방송, 에스비에스[전날엔 서울방송이었음]로 부르고 적으면 되지만, 방송 차림표 따위 그림표에서는 편의상 약자로 적을 수 있겠다.)

## 6. 로마자 약자 읽기 혼란

글자 A는 ‘에이, 아, 에, 애’가 뒤섞여 쓰이고, C는 ‘스’와 ‘케이’, E는 ‘에’와 ‘이’가, I는 ‘이’와 ‘아이’가, U는 ‘유’와 ‘우’가 뒤따르는 글자에 따라 섞여 쓰인다. 그 말과 직접 관련된 나라 발음으로 읽어야겠지만 우리 나름으로 글자의 소릿값을 하나로 정하여 쓸 필요가 생긴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나 약자까지 미국식으로 읽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보기)

에이다·아다(ADA) 아알라(AALA) 에이펙·아펙(APEC) 안투(ANTU)

알골(ALGOL) 아스키(ASCII) 아세안(ASEAN) 앤저스(ANZUS) 안시(ANSI)  
에이웍스·아웍스(AWACS, 조기경계관제기)

## 7. 마무리 / 로마자 적기 반성

지지난해 행정자치부 사무 규정에서 공공문서는 한글로 쓰되 괄호하여 로마자나 한자를 넣어 쓸 수 있도록 고쳤다. 한글전용법(법률 제6호)이 있으나 민간 문서나 글에서는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 특히 심각한 것은 국내 단체나 기구·회사 이름·상표·상호 따위에서 로마자로 이름을 지어 쓰는 것이다. 제대로 되려면 본 이름과 이를 로마자로 옮긴 것 둘이 필요할 터인데 마냥 로마자로만 쓰는 것은 잘못이 아닐 수 없다. 특히나 등록을 할 때 반드시 둘을 구별하여 이름을 짓고 등록하도록 상표법이나 상법, 광고 관련법 기타에 명시하거나 법률 제6호를 고쳐 낱말이 규정함으로써 로마자 바람을 막고 우리말글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체로 고유명사이거나 몇 해 쓰이다 사라지는 상품 이름 따위가 문제인데, 숫자말처럼 근본적 읽기 체계에서 비틀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어문 규정 담당 기관에서 이 방면의 확실한 규정 보완과 함께 국어사전 등에서 올림말을 올릴 때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하여 다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사는 이런 부분에서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는 듯하며, 나아가 이를 틈타 상업적으로 외국어와 로마자 쓰기를 조장하고 있으므로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자율이나 양식에 기대기에는 한계를 넘어선 상태다. 어문 관련 부서가 있는 문화관광부, 교육을 집행하는 교육부, 국립국어연구원, 한글 학회 등 민관이 아울러 운동을 벌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터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를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곧 로마자를 안 쓰면 다인가 하는 점과 이를 소리대로 한글로만 적어서는 속시원한 대책이 못 된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아쉬움은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감내해야 할 모양이다. 이 점 좀더 나은 정책을 내주었으면 한다.